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Special_Pohang

포항

갈매기의 날갯짓에 꿈을 싣다

■ 사진/김주형 기자 글/박상현 기자

한반도 오른쪽 곡선은 매끈하고 부드럽다. 두만강에서 시작된 유려한 선은 원산을 기점으로 부산까지 호를 그리며 내려가다가 포항에서 작은 용돌임을 한다. 낯설바늘처럼 생긴 포항의 해안은 움푹 들어간 영일만과 살짝 튀어나온 호미곶이 있어서 '호랑이의 꼬리'처럼 보인다. 그 바다에는 언제나 하얀 갈매기와 상쾌한 바람이 갈손과 동행한다. 여행자는 이곳에서 한창 날갯짓하는 갈매기를 보며 일탈과 비상을 꿈꾼다.



영일만과 접한 제철소에서 뿜어낸 연기는 어느덧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혼연일체가 된다. 낮에는 웅물스럽게만 보였던 굴뚝과 공장은 어스름이 깔리면서 주홍빛에 휩싸여 매혹적인 풍광의 배경으로 변모한다. 철을 제련하는 용광로의 뜨거운 기운처럼, 제철소의 열기는 세상을 태울 것처럼 강렬하다. 제철소의 야경은 건너편에 자리한 북부해수욕장의 또 다른 화려함과 대비를 이룬다.

조너선 리빙스턴은 사회에 반기를 든 반항아였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 때, 그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멋지게' 비행하기를 희망했다. 하루살이처럼 날마다 먹고사는 일만 걱정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을 보고자 했다. 조너선이 동료들의 따돌림과 멀리 속에서도 곳곳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아실현에 대한 강한 믿음 덕분이었다.

포항을 대표하는 새인 갈매기는 북쪽의 월포해수욕장부터 남쪽의 구룡포까지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해변의 모래사장 혹은 방파제 위에 앉아있는 갈매기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의 공통점은 '쉽게 날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길쭉한 날개를 펼치고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광경을 좀체 구경하기 어렵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과자를 던져주지 않으면, 움썅달썅하지 않는다.

이곳에 조너선처럼 장대한 꿈을 가슴에 품은 갈매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눈앞의 일에 급급하는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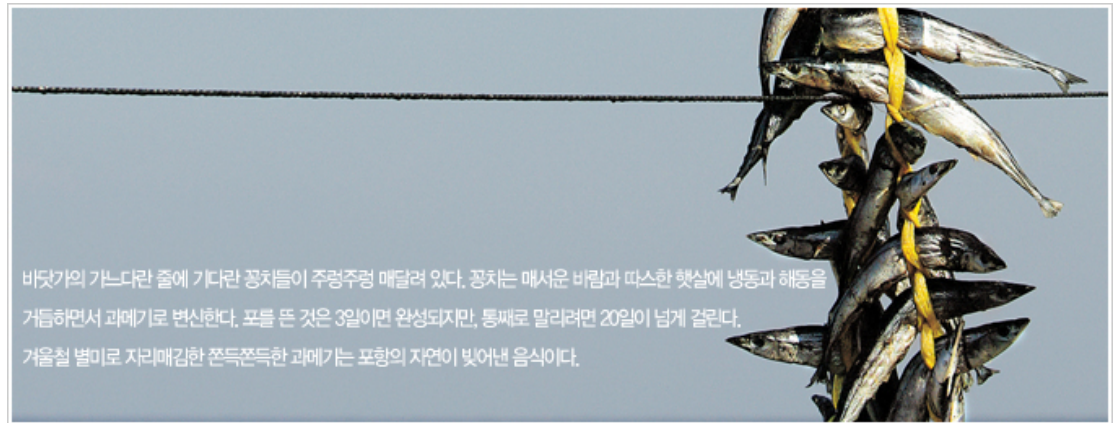
매기를 보면, 일상에 쫓기는 범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싶다. 그래서 아주 가끔 날개를 퍼덕거리며 창공으로 비상하는 갈매기를 보면 마음 한 구석이 후련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고된 현실에 꿈은 부스러지기 마련이다. 여행자는 시원스레 날갯짓하는 갈매기에 자신을 투영해 삶의 부담을 털어내고, 지난날의 꿈을 추억한다.

110km에 달하는 포항의 해안선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다. 북쪽은 화진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칠포해수욕장 등 모래 해변이 많고 밋밋한 데 비해, 남쪽은 굴곡이 심하고 바위가 많은 편이다.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배치돼 있는 명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은 '호랑이의 꼬리'라는 뜻을 가진 '호미곶(虎尾串)'이다.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상생의 손'이 자리한 호미곶은 일출 명소로 12월 31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

소문이 났다. 여기에 상생의 손 위로 새빨간 불덩이가 놀라가는 광경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곳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마치 효녀 심청의 고향을 놓고 전라남도 곡성군과 인천시 옹진군이 다투는 것처럼 호미곶과 울산시 간절곶은 서로가 가장 이른 시간에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기상청의 일출 시간을 비교하면 간절곶이 1분 정도 빠르지만, 지도상으로는 호미곶이 더 동쪽에 위치하므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두 지역의 논쟁은 치열하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늘어난 셈이므로 그저 즐거울 따름이다.



굽이치는 해안도로를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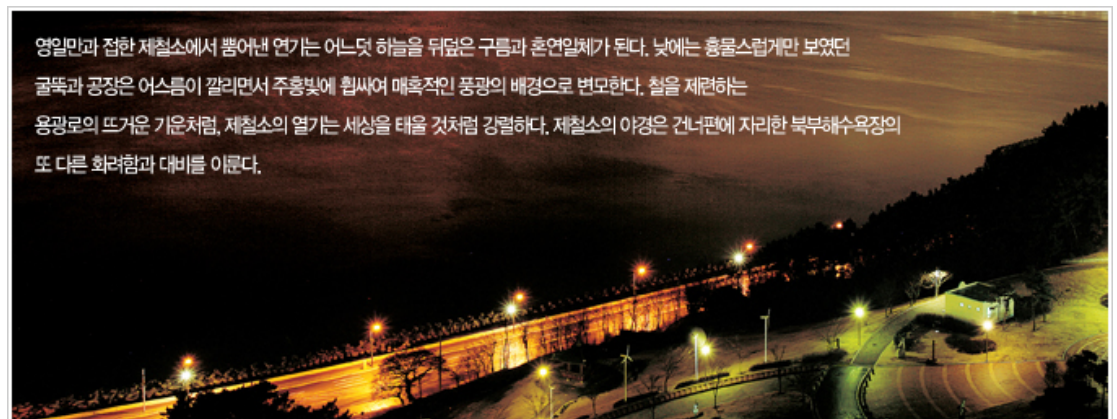
포항 해안도로 여행은 20번 지방도로와 925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는 길이다. 도로가 해변과 나란히 굽이치며 조성돼 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예쁜 경치가 마음을 끌어당기면 멈춰 서서 감상하면 그만이다.

월포해수욕장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앞바다에는 그 흔한 섬 하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질푸른 바다와 얼은 파란색의 하늘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수평선을 형성했다. 20번 지방도로를 타고 칠포해수욕장으로 가는 도중에는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과 갈매기들이 해변 여기저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드넓은 모래벌판이 인상적인 칠포해수욕장은 동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하루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여름이면 텐트로 꽉 들어찬다. 그러나 봄의 문턱에는 역시 분위기가 스산했다. 제철이 아닌 바다는 언제나 쓸쓸하지만, 그래서 더욱 좋다.

시내와 인접한 북부해수욕장을 지나 호미곶으로 내달렸다. 영일만의 중심에 있는 포스코만 없다면 포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일상적인 풍경이 계속됐다. 가옥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한적한 어촌과 하얗고 빨간 등대, 미역을 말리는 아낙네가 바닷가를 주유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과메기의 고향인 구룡포 항구에는 집어등을 매단 배들이 집결해 있었다.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횃집들은 간판에 '대게'를 내걸었다. 울진이나 영덕만큼은 아니지만 구룡포에서도 대게 잡이가 활발하다. 5월까지 이루어지는 대게 잡이가 끝나면 포항의 바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내연산

바다와 면해 있는지라 포항의 산은 그리 높지 않고, 골은 깊지 않다. 포항은 태백산맥에서 부산 대포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에서도 한 발짝 비껴나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명산은 없지만, 마음 편하게 오를 만한 산은 많다. 그중에서도 해발 710m 높이의 내연산은 사계절 수려해서 포항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산. 내연산(內延山)의 한문을 풀이하면 산세가 꽤나 매혹적일 듯싶다. 포항과 영덕의 경계에 솟아 있는 이 산은 본래 종남산(終南山)으로 불렸으나, 신라시대 진성여왕이 견훤의 난을 피해 도망쳐온 이후로 내연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문의 뜻풀이와는 달리 왕이 사람들을 밀어내고자 했던 산이었다.

내연산은 곳곳에 비경이 숨겨져 있어서, 진면목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한다. 폭자는 28개의 명소가 있다고 하나,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그나마 잘 알려진 것이 연산폭포, 상생폭포, 관음폭포 등 12개의 폭포다. 특히 30m 높이에서 물을 쏟아내는 연산폭포는 웅장하고 장쾌하다. 정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만나는 폭포들은 한여름의 불멸여위를 가시게 한다. 조선시대 보경사에서 생을 마감한 한 승려는 “폭포와 절벽, 기암괴석이 굽은 소나무와 함께 진열되었으니 이곳 사람들은 소금강이라 말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등산이 힘든 사람은 산자락에 조성돼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다. 1500여 종의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수목원은 거대한 자연 학습장이다. 목재 표본, 약용식물,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과 고산식물원, 울릉도식물원, 수생식물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요즘 싹이 돋고 꽃이 피어 더욱 화사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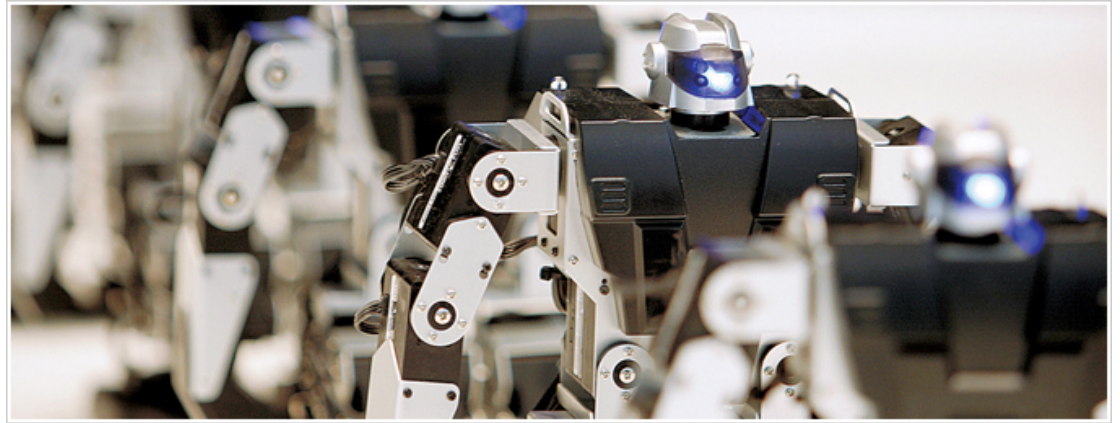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 구하는 산사 여행 보경사(寶鏡寺)는 꽃잎에 둘러싸여 있는 암술과 수술처럼 내연산에 살포시 안겨 있는 사찰이다. 삼국시대에는 경주의 불국사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한 절이었다고 한다. 보경사 역시 한문 속에 꽤나 중요한 함의가 숨어 있다. ‘보경’은 보물 거울을 뜻하는데, 이 절의 거울 덕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절을 창건한 지명법사가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도인으로부터 8면 거울을 땅에 묻고 법당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실천에 옮겼더니 실제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의상과 원효 같은 고승들이 불국사에 기거하면서 세가 기울게 됐다.

장구한 역사를 견뎌온 절이지만, 분위기가 그리 위압적이지는 않다. 중창을 거듭해서 가장 오래된 건물도 조선시대 중기에 지어진 탓이다. 보광사의 가람은 입구인 천왕문 뒤로 5층 석탑, 적광전, 대웅전 순으로 배치돼 있다. 적광전의 토대는 청옥(靑玉)인데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색이 바래서 반짝이는 보석이라기보다는 투박한 돌 같은 느낌이다.

작은 불상들이 가부좌를 하고 있는 대웅전 너머로는 팔상전, 신령각, 원진각, 명부전이 일렬로 세워져 있다. 뒤편으로는 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부딪쳐 사각거리는 소리와 대웅전의 처마에 매달려 있는 풍경의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겹쳐 멋진 교향악을 이뤄낸다. 보경사는 이러한 자연의 음색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사찰이다.

사람들이 산사를 찾는 이유는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보경사는 이러한 목적에 정확히 부합한다. 겨울과 봄 사이에 어적쩍하게 발을 걸치고 있던 어느 날의 보경사는 차분하고 하전했다. 와

연한 봄이 찾아오고 석가탄신일이 돌아오면 이곳도 인파로 북적거릴 것이란 생각에 산사에서 얻은 일순간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로보 라이프 뮤지엄(Robo Life Museum)

로봇으로 미래 사회를 엿보다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한 로봇은 본래 고되고 지루한 일, 강요된 노동력을 뜻한다. 하지만 현재의 로봇은 단순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것은 물론 집안일을 도와주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다. 로보 라이프 뮤지엄은 점점 사람과 친밀해지고 있는 로봇이 구현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올해 1월 문을 연 로보 라이프 뮤지엄은 산업도시인 포항에 잘 어울리는 박물관이다. 로봇지능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이나 만화책으로만 보던 다양한 로봇들이 전시돼 있다. 로보 라이프 뮤지엄은 아이들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고, 로봇과 함께 놀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로보 라이프 뮤지엄은 지능로봇 흥미관, 지능로봇 체험관, 지능로봇 탐험관, 로봇 카페 등 4가지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지능로봇 흥미관은 집을 지켜주는 로봇, 심리치료 로봇, 청소 로봇 등 이미 상용화돼 있지만, 만나기 힘든 로봇들로 구성돼 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인 ‘로보노바(Robonova)’의 공연도 흥미롭다.

지능로봇 체험관은 로봇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전시실이다. 로봇이 어떻게 사람을 인식하는지, 로봇의 표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5세 정도의 사고능력을 갖추고 직립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관람객을 맞는다. 지능로봇 탐험관은 인명 구조, 내시경, 행성 탐사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로봇들로 꾸며져 있다. 로봇 카페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쭈

로보 라이프 뮤지엄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간당 최대 관람 인원은 40명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 공휴일 다음날은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개인 3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2000원이다. www.robolife.kr, 054-279-0427





등대박물관

한반도의 등대가 간직한 이야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는 고요하고 무섭다. 이정표 하나 없는 해상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 등대는 막막한 바다 위를 나아가는 배에게 길을 알려주고, 선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고마운 파수꾼이다. 등대박물관에는 지난 100여 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한반도의 바다에 빛을 비춰준 등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에도 거의 없는 등대박물관은 호미곶에 자리해 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호미곶 등대의 바로 옆자리에 터를 잡았다. 벽돌로만 지은 호미곶 등대 내부에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인 ‘자두꽃’이 새겨져 있다. 한일병합 직전,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근대적인 등대는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등대는 모두 길쭉하고 외벽이 흰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울릉도는 오징어, 영덕은 게 다리, 통영은 연필처럼 각 지방을 잘 나타내주는 사물을 차용해 세워진다. 등대박물관에는 이러한 등대들의 모형과 등대지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품, 과거 등대에서 쓰였던 등명기나 전구 등이 전시돼 있다. 등대지기 임명장과 월급 명세서 같은 소소한 문서들도 흥미롭다.

현재 한반도에 있는 등대는 모두 1000개가 넘지만, 유인 등대는 42개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점차 무인화되는 추세에 있다. 등대는 빛과 소리, 전파 등 3가지 방법으로 배에게 항로를 알려준다. 따라서 등대의 역사는 최대한 멀리까지 빛을 비추고, 소리와 전파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위성항법장치가 생겨나도 등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배도 있고, 기계가 갑자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대는 앞으로도 예전처럼 말없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1995년 개장한 등대박물관은 올해 관내를 다시 꾸밀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에는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개인 700원, 20인 이상 단체는 500원이다.

www.lighthouse-museum.or.kr, 054-284-2857

Pohang Information

포항 시티 투어

포항시에서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하게 시내를 돌아볼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주말마다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전 9시 30분에 포항역 광장을 출발해 오후 5시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프로그램이 다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입장료와 점심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매주 금요일 정오까지 할 수 있다. 054-243-7979

토요일		일요일	
09:30	포항역 집합	09:30	포항역 집합
10:00-10:40	포스코역사관 견학	10:00-11:00	포스코(제철소 견학)
11:00-12:00	로보 라이프 뮤지엄 견학	12:00-14:00	보경사, 내연산
12:00-13:00	포항공대점심 식사	14:30-15:30	사방기념공원

덕동문화마을 조선시대의 유학자 이언적의 동생인 이언괄의 4대손 이강이 경주 양동마을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거처를 정한 곳으로 360년간 여강 이씨의 집성촌이었다. 이언괄은 이언적이 벼슬을 하러 나서자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13:40~14:10	덕동분화마을	16:00~16:30	대통령 고향 마을
14:40~16:00	경상북도 수목원	17:00	포항역 도착
16:50	죽도시장		
17:00	포항역 도착		

살았다고 한다. 2001년에는 환경 친화 마을로, 2006년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운제산과 오어사 원효대사가 이 산에 원효암과 자장암을 지었는데, 두 암자를 왕래하는 것이 힘들어 구름다리를 지었다는 데서 ‘운제산’이라 불린다. 신라시대의 고승들이 수도했다고 전해진다. 오어사(吾魚寺)는 ‘내가 살린 물고기’라는 뜻으로 오어지와 맞닿아 있다.

비학산과 법광사 학이 알을 품고 있다가 하늘로 비상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비학산(飛鶴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다투기도 했다. 법광사는 비학산 입구에 있는 절로, 철종 말년에 전소됐으나 1952년 새로이 건립됐다.



이명박 대통령 고향 마을 지난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마을은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에 위치해 있다. 포항 시내에서 흥해읍을 지나면 표지판이 보인다. 고향 마을에는 이 대통령의 11대 조가 터전을 잡고 살았던 집터와 사촌 형수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있다. 사촌 형수의 집 앞에는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당선될 때까지의 인생 역정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장기읍성 남구 장기읍 읍내리에 위치한 성으로 마을의 진산인 동악산의 산등성이를 따라 쌓아져 있다. 성 아래로는 장기천이 흐르며 들판도 형성돼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이 파괴돼서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나 향교는 복원, 유지되고 있다.

포스코역사관 포스코의 역사와 기업 문화를 담은 박물관으로 2003년 7월 개장했으나, 최근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다. 전시실은 우리 민족의 철기문명을 다룬 창업전사를 비롯해 포항 건설기, 광양 건설기, 테마존, 창의관, 세계 속의 포스코 등으로 구분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museum.posco.co.kr, 054-220-7720

영일 민속박물관 구 영일군과 영일문화원이 공동으로 향토 풍습과 민속 유물을 보존하고자 만든 박물관이다. 조선시대 현종 원년에 건설된 흥해군의 동헌 건물을 수리해 1983년 개관했다. 생활용구와 농업 및 어업 기구, 고서적, 토기, 의복 등 4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에 문을 닫는다. 054-270-5811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학도병과 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체험할 수 있는 무기와 유품, 인물 모형이 비치돼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054-270-5807

입암서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피난 왔던 장현광을 봉안하고 지방 유림인 권극립, 정사상, 손우남, 정사진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고종 5년에 훼손됐으나 1972년에 복원했다.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죽도시장 포항 시내 중심지인 오거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이다. 건어물 상가, 어패류 상가, 냉동어류 판매장, 회 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위판장에는 200여 개의 횡집이 있어서 싱싱한 회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다. 시내버스 대부분이 죽도시장을 지나므로 가기 쉽다.

Festival

포항 국제 불빛 축제 해마다 여름이면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불꽃놀이를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이외에도 공연과 콘서트, 유소년 야구대회, 음식축제가 함께 펼쳐진다. 이 기간에는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포항 해병 문화축제도 개최된다. 포항에는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해 있다.

호미곶 해맞이 축제 ‘일출’로 유명한 호미곶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열리는 축제로 새해 소망 연 날리기, 해상 퍼레이드,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 팬 사인회, 1만 명 떡국 만들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포항의 겨울 별미인 과메기 판매장도 운영된다.

물회 선원들이 갓 잡은 생선의 살점을 발라내 초고추장에 비벼 먹던 음식이다. 회를 적당히 넣은 뒤 초고추장, 고소함을 더해주는 참기름, 다진 마늘과 생강, 설탕을 적당히 첨가하고 물을 부으면 완성이다. 여름이면 더위로 잃어버린 식욕을 돋워주고, 과음한 다음날에는 속을 풀어주는 별미다. 포항 시내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

과메기 청정한 바다에서 잡은 꽂치를 영하 10°C 이하의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가 12월부터 바깥에서 말린 음식이다. 자연 상태에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 살이 꼬들꼬들해진다. 본래는 청어를 사용했으나, 과메기로 만드는 데 오래 걸려서 지금은 꽂치를 쓴다. 비린내가 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 미역, 다시마, 양파 등과 함께 먹으면 특유의 냄새가 줄어든다.

피데기 ‘피데기’는 반쯤 건조한 오징어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이다. 과메기처럼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녹신녹신할 때까지 말린다. 말린 오징어보다 육질이 연하고 맛이 좋은 편이다.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우린과 감칠맛 성분인 베타인이 많이 함유돼 있다.

여행 정보 홈페이지: 포항시청 www.ipohang.org / 포항시 축제 phfestival1.ipohang.org

[▲ top](#)